

광복 6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예순 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애국선열들의 큰 뜻을 되새기며 풍요롭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광복 60년의 역사는 동시에 분단의 역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북에 남겨둔 가족과 고향산천에 대한 이산가족 여러분의 사무친 그리움을 아직도 씻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의 아픔은 7천만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픔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고령으로 이산 1세대가 한 분 한 분 세상을 뜨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다행히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10차례에 걸쳐 1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이번 광복절부터는 화상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가족상봉이 이루어지고, 이달 하순에는 11차 이산가족 상

붕과 금강산면회소 착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북핵문제 등 쉽지 않은 걸림돌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논의가 활발해지고,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기업인과 북한 근로자들이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져서 더 많은 이산가족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나고 그리운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의 슬픔 속에서 광복 60주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지를 만나고 다시 고향땅을 밟는 그날까지 부디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